

위니아 회생절차 돌입... 협력업체 자금난 해소 기대감

법원, 개시 결정... 회생계획안 검토 등 인가 개시 2~3개월 소요 광주시·정치권, 中소특별지원 지정 신청 추진 등 전방위 노력

대우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 줄 도산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경제·산업계에 이어 광주시와 정치권도 협력업체 대책 마련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법원이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일부에 대한 회생절차를 결정하면서 관리인 선임에 따라 근로자 체불임금, 퇴직금 등 정산과 함께 지역 협력업체 미지급 대금 지급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인가 개시까지는 2~3개월 소요됨에 따라 인가 개시가 늦어질 경우 이 기간 중 일부 협력업체들이 자금난 등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이동식·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혁표 대표이사 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된다.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7일부터 20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앞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도 지난달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이날 19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치냉장고 '딤체'로 유명한 위니아는 김치냉장고와 에어컨을 비롯한 주방가전, 생활가전 등을 출

시하는 전자제품 업체로,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경영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 체불이 맞물려 잇따라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법원의 (주)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 중 마지막 남은 대우플러스도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지도록 광주 경제·산업계와 의견을 모아 법원에 호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회계 자금 50억원,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50억원을 우

선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대책도 추진 중이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산학연협의회 등 지역경제·산업계는 탄원서 제출과 함께 한 목소리로 법원에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이날 오후 대우위니아 협력업체 10개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위니아 재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대우위니아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협력업체 채권단 대표인 박재덕 팬케미칼 대표는 "채권 회수와 위니아 재가동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인가개시는 2~3개월 걸리는 데 2~3주 내에 인가개시를 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10~12월 김장 시즌 김치냉장고가 80%가

량 생산된다. 기간 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 협력업체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주기한 시장위원장은 "광주시당은 대우위니아 살리기 전담반을 구성했다"며 "협력업체 대표단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뜻을 같이하겠다. 정부와 중앙당에 공장 재가동과 채권 회수 방안 마련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대우위니아 그룹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생계유지 및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와 대우위니아 그룹의 경영책임자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 및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등이 담겼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이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전달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독도는 우리 땅” 23일 독도의 날을 이틀 앞둔 23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손태극기를 들고 독도 사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북구는 독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광장에 태극기 화단을 조성했다. /나명주기자mjna@

전남 11곳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전국 최대 선정 359억 확보... 폭염 완화·미세먼지 저감 기대

전남도내 11개 시·군의 삭막한 공간에 '기후대응 도시숲'이 조성된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시 열섬 현상과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생활권 및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이 매년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모에서 도내 11개 시·군이 선정돼 사업비 359억원을 확보했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목포 대양산단 등 2ha ▲여수 웅천지구 1ha ▲순천 백강로 등 7ha ▲광양 익산-초남산단 등 2ha ▲보성 조성농공단지 1.9ha ▲화순 남산공원 등 7ha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2.8ha ▲영암 서호IC 1ha ▲무안 남악신도시 2ha ▲완도 원동교차로 2.2ha ▲신안 자은지구 7ha 등이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대상지는 수종

선정, 식재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초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대상지 선정 등을 앞두고 전 시·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매년 가장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 주관 전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2022년 '광양 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 최우수상, 2021년 '순천 도시숲, 신안 가로수' 2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남도의 도시숲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9% 낮추고, 1ha의 숲은 경유차 27대가 연간 내뿜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여수 국가산단, 순천 울촌산단, 광양 명당산단 등 총 66개소에 1293억여원을 들여 129.1ha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강 시장, 인공지능 2단계 신속 예타 통과 요청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면담... 기재부에 광주의료원 설립 당부도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연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마음껏 실증

이 가능한 실증센터를 내년 개관하면, 많은 기업이 광주에 모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중단 없는 2단계 사업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개

관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광주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앞서 광주의료원 타당성조사와 관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재정관리국장을 면담, 광주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을 설득하고 타당성조사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조선해양기자재 4700만 달러 수출 상담

전남도 상담회 국내외 25개사 참여... 해외 판로 개척 기회

전남도는 지역 내 조선해양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선 중국 6개사, 싱가포르 5개사, 튀르키예 2개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각 1개사 등 총 15개 바이어사와 도내 조선기자재수출기업 10개사가 참여해 국제 네트워크와 미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특히 여수해양, 중앙해양, 장보고조선, 은성중

공업은 소형 선박을, 현대엔테크와 유일시스템은 소형 선박 엔진 및 발전기를, 빈센은 친환경 선박용 수소 엔진을, 백건준설은 수륙양용준선설을, 혁신은 선박 접안 시설물을, 신우산업은 레저용 선박을 총합해 37건 4700만 달러 상당의 상담을 추진했다.

상담회가 환경 친화적 조선해양 기술과 친환경 해운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협력 기회가 열려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가 됐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계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